

Vol. 2

No. 6 2008. 3. 10

KEEI ISSUE PAPER

전력시장 FTA 대응방안 -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Contents

1. 개요 / 6
2. 우리나라 전력시장 지배구조 현황 / 9
3. 해외 전력시장 지배구조 현황 / 10
4. 주요 시사점 / 22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전력시장 FTA 대응방안

-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이근대 ·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요 약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필요
 - 주변국가와의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서비스 협상에서 전력산업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 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국내외 전력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세밀한 분석 필요
- 국내 전력시장 지배구조
 - 2005년 말 기준으로 발전부문은 5개 발전자회사와 5개의 민간발전회사 등이 있음.
 - 한전이 국내 송 · 배전 및 판매부문 독점사업자임.
 -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회사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Pool 제를 운영함.
 - 다만 PPA사업자, 200kWh이하 신재생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자가발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현재 판매부문은 송 · 배전부문과 같이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지배구조 : 정부의결권 보유주식이 51.07%, 외국인 비율은 국내 증시 투자 약 18%, 해외 DR 약 12% 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 전력시장 지배구조
 - 주식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가 미국 전체 전력생산의 50% 이상(2000년 240개사) 담당

- 주정부 또는 시정부 소유의 전력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전력 판매(2000년 2009개사)
- 조합(Corporative)은 2000년 현재 894개사 존재
- 연방정부 소유의 전력회사는 발전과 송전 분야 참여(2000년 9개사)

● 영국 전력시장 지배구조

- British Energy : 국영발전사(정부소유지분 64%중 2007년 28% 매각 결정)
- 발전사업자 : Centrica, NPower(RWE), Powergen(Eon), EDF Energy, Scottish Power, Scottish and Southern Electricity
- 역외사업자 : Scottish Power, Scottish Hydro, 프랑스 EDF 등
- 송전사업자 : NGC
- 배전 및 판매회사 : 7개의 대형 배전사업자와 6개의 대형 판매사업자

● 프랑스 전력시장 지배구조

- 발전, 공급, 그리고 에너지 거래는 규제를 제거하였으나, 송배전은 여전히 규제대상
- 발전, 공급, 그리고 에너지 거래에 있어 2004년 7월 1일 가계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 시장을 개방함. 2007년 7월 1일 가계부분 또한 개방
- 2007년 1월 3일 현재 프랑스정부가 EDF(Electric de France)의 87.3% 지분을 소유함. 발전부분에 있어 EDF는 19곳에서 58개의 원자력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송전은 EDF의 자사인 RTE EDF Transport가 전담함. 배전은 EDF Réseau de distribution 및 EDF Gaz de France Distribution이 담당

● 독일 전력시장 지배구조

- 소수의 대규모기업들이 수직적, 수평적 결합형태로 전력시장 지배
- RWE, E.ON, Vattenfall, 그리고 EnBW 등 4개의 대기업이 존재하며, 이들은 총전력발전의 90%의 시장을 점유

● 스페인 전력시장 지배구조

- 발전 및 공급시장은 4개 발전기업 및 배전업체가 90% 정도의 시장을 점유
- Endesa, Iberdrola, Hidrocanabrico, Union Fenosa 등이 4대 발전기업
- Endesa와 Iberdrola가 전력 공급의 70%를 담당
- 현존하는 기업을 합병하지 않는 이상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함.

● 스웨덴 전력시장 지배구조

- 스웨덴 전력은 소수 기업들에 의해 생산 됨. 2005년 Vattenfall, Fortum, 그리고 E.ON Swenden이 스웨덴 전력의 88%를 생산
- 그러나 전력도매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함. 3대 Nordic 전력생산자들의 시장점유율은 41% 정도
- Vattenfall은 스웨덴 국영기업으로 전력부문에서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전, 송전, 배전, 거래, 공급 및 서비스 등에 참여
- Fortum은 핀란드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 배전, 전력 및 열 판매 사업

● 이탈리아 전력시장 지배구조

- 전력발전에 있어서, 5대 발전회사가 70%이상을 생산함. Enel Produzione(39%), Edison Group(11.7%), Eni Group(9%), Endesa Italia(8.2%), 그리고 Edipower(8%) 등이 포함됨.
- TERNAs는 송전시스템운영자(TSO)로 2007년 7월 1일부로 어떤 전력시장참여자도 관련주식자본의 5%이상을 초과해서 Terna의 주식을 가질 수 없음. 현재 Enel이 5.12% 소유함.
- Acquirente Unico SpA는 자가발전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유일한 도매시장구매자임.
- 2006년 6월 30일자로 이탈리아에는 168개의 배전업자가 존재함. 가장 큰 기업이 Enel Distribuzione이며, 1999년부터 법적으로 분리됨. 그러나 의사결정 및 운영과 같은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님.

● 일본 전력시장 지배구조

- 일본의 전력은 일반전기사업자, 도매전기사업자, 도매공급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 특정규모전기사업자 등의 전기사업자들에 의해 공급

-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사업자인 일반전기사업자는 총 10개의 발전회사(민영)가 있으며, 발전, 송배전 및 소매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중국 전력시장 지배구조

- 송배전업자(국영)에는 State Grid Corporatio of China(SG), China Southern Power Grid Co Ltd 등이 있음.
- 발전부분은 민간 또는 외국자본참여가 있으며, Huaneng Group, Datang Group, Huadian Group, Guodian Group, 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등의 기업이 존재함.

● 인도 전력시장 지배구조

- 발전부분은 대부분 주정부 소유 발전시설들로 구성됨.
- 송배전부분에서 송전 네트워크는 현재 인구의 80%수준에 있음. 송전 인프라는 5개 지역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호연결 되어 있지 않음. 주정부 소유의 Powergrid corporation은 약 40% 송배전을 담당함.

● 미국 및 EU 등의 해외 국가의 전력시장은 이미 시장을 개방하였거나 시장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전력시장의 소유구조는 다양함. 반면 중국 및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전력시장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 소유가 많고 부분적으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존재하는 전력시장구조임.

● FTA 체결에 있어 에너지서비스부문, 투자부문 등에 대하여 전부 양허를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대응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EU 등의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력사업자의 소유구조는 다양하며 반드시 민영화되는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음. 즉, 기업의 소유구조는 다양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가능 부문(발전, 판매)에 있어 민영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는 없음.
- 즉, 전력산업 구조개편 혹은 규제완화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전력회사의 민영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임.

1. 개요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대 ·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필요함.
 - FTA 체결을 통해 주변국가와의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 조성 필요
 - FTA 추진에 있어 기본적으로 FTA 체결에 의한 아국 피해의 최소화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거대경제권 시장 선점전략이 필요
- 유럽국가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움직임이 1990년대부터 시작됨.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면 중단된 상황임.
 - EU의 전력시장에 대해 회원국들은 1991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기본적 합의를 하고, 1992년 유럽연합조약을 통해 조인함. 2003년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각각 단일화 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전력 및 가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함. 회원국들은 비차별적인 송 · 배전 요금 보장, 소비자 보호, 공정한 사업 환경조성, 시장지배 위험 감소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영국은 90년대 가장 먼저 경쟁체제를 도입함. 발전, 송전, 배전을 독점하고 있던 중앙 전력국(Central Electricity Generating Board)을 3개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시킴. 또한 12개 지역배전회사로 주식매각을 단행함. 각 전력회사가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쟁시스템을 도입함.
 -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국가 60% 이상이 시장을 개방하였거나, 시장개방을 위한 입법 추진 중임(〈표 1〉 참조).
 - 세계 최대전력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90년대 중반 이후 주별로 전력시장 자유화가 진행중임. 현재 21개주에서 경쟁적 전력시장을 운영함.
-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서비스 협상에서 전력산업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 대책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전력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양허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표 1〉 유럽 전력시장개방 현황

국가명	시장 개방률	시장개방 규모(T조)	유자격 소비자기준	국가명	시장 개방률	시장개방 규모(T조)	유자격 소비자기준
오스트리아	100	55		에스토니아	10	1	40GWh
벨기에	90	60	비주택(B&W)	라트비아	76	4	비주택
덴마크	100	33		리투아니아		50	
핀란드	100	80		폴란드	52	25	1GWh
프랑스	70	275	비주택	체코	47	15	시간대계량
독일	100	500	1GWh	슬로바키아	66	22	비주택
그리스	62	29	비주택	헝가리	67	10	비주택
아일랜드	56	12	20GWh	슬로베니아	75	1	비주택
이탈리	79	225		키프러스	35	0	350GWh
룩셈부르크	57	3		몰타	0	25	
네덜란드	100	100		루마니아	33	5	40GWh
포르투갈	100	42		불가리아	22	30	40GWh
스페인	100	210		터키	29	0	7.8GWh
스웨덴	100	135		크로아티아	0	0	
영국	100	335		보스니아	0	0	
노르웨이	100	110		세르비아	0		
				구유고	18		100kV
				알바니아	8		50GWh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2005.9), "해외전력산업 동향"

〈표 2〉 해외 주요국가 전력회사 지배구조

국가	기업	소유구조	비고
미국	240사(2004년)	투자자	- 미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50%
	2009사(2004년)	주정부/ 시정부	
	894사(2004년)	조합소유	
	9사(2004년)	연방정부	- 발전 및 송전분야에 참여 - 지방정부, 조합소유, 민간 주주 소유의 전력회사들에게 도매시장가격으로 전력판매
영국	National Power	민영	- 영국 및 웨일즈에서 가장 큰 발전업체 - Innogy와 International power로 분리 - Innogy는 2002년 RWE가 인수
	Powergen	민영	- 독일기업인 E.ON 소유, 2번째로 큰 기업
	NGC	민영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국 민간 독립 송전망 사업자
	Scottish Power	민영	- 스페인 기업인 Iberdrola 2006년 인수
	Scottish & Southern Energy	민영	-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
	British Energy	국영	- 영국에서 가장 큰 발전업자로 기존에 국영이었던 8개의 원자력발전 운영중이며, Eggborough 석탄발전소를 가동 - 영국정부가 64%의 지분 소유. 2007년 5월 28%지분 매도.
프랑스	Electric de France(EDF)	민영	- 유럽 최대 전력 발전업체 - 2007년 1월 현재 프랑스정부가 EDF 87.3% 지분보유
독일	RWE	민영	- 독일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이며 공급업자 - 발전, 송전 및 공급, 거래, 전력망 운영
	E.ON	민영	- 독일에서 2번째로 큰 전력회사로 약 25% 시장점유
	EnBW	민영	-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전력회사로 지분구조는 EDF(34.5%), OEW(34.5%), Deutsche Bank(5.86%), HSBC(5.86%) Bädisher Elektrikatsverband(3.44%), 기타
일본	일반전기사업자로 10개의 발전회사	민영	- 금융기간이 대다수의 지분 보유. 개인 및 기타 등이 금융기관 다음으로 많은 지분보유 - 외국법인에 의한 소유 지분은 2~16%정도 유지
중국	중국화능집단공사 중국대당집단공사 중국전집단공사 중국화전집단공사 중국전방투자집단공사	민간 및 외국 자본 참여	
	국가전망공사 중국남방전망공사	국영	
인도	발전(National Thermal Power Company)	주정부	- 인도 기업의 76%가 자가발전시설 보유
	송배전(Powergrid corporation)	주정부	
	Reliance/BSES	민영	- 배전망기업
	Tata Power	민영	- 발전부문에 있어 가장 큰 민간 발전업자

2. 우리나라 전력시장 지배구조 현황

● 국내 발전, 송배전 부분 현황

- 2005년 말 기준으로 발전부문은 5개 발전자회사와 5개의 민간발전회사 등이 있음.
- 한전이 국내 송·배전 및 판매부문 독점사업자임.
-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회사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Pool 제를 운영함.
- 다만 PPA사업자, 200kWh이하 신재생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자가발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

● 국내 소매 및 기타 부분 현황

- 현재 판매부문은 송·배전부문과 같이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국내 전력산업 지배구조 현황

- 한국전력공사 지배구조 : 정부의결권 보유주식이 51.07%, 외국인 비율은 국내 증시 투자(약18%), 해외 DR(약12%) 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 전력산업 지배구조 규제는 공기업 지배구조 규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 증권거래법 제 203조/증권업무감독규정 등을 따름.

● 발전부문 민영화 계획 및 전망

- 국내 전력산업에서의 발전부문은 경쟁이 도입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당부분 해외 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임.
- 분할된 5개 자회사에 대한 매각이 원래 계획(2002년까지 발전부문을 분리, 분할 및 매각 완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저평가로 인한 매각가치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

● 송전부문 현행제도 및 개방계획

- 전력회사에 대한 투자 시 지분매입 제한 : 증권거래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상한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의 경우, 총 외국인 지분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 1인이 3%를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전력망사업에 대한 참여 금지 : 송전사업 등의 망사업에 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
- 송전 부문은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는 설비이용을 보장토록 개방을 완료함.
- 배전부문 현행제도 및 개방계획
 - 송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외국인 지분매입 제한함(전기사업법 15조).
 - 한전 주식에 대해 40% 이상 지분제한 및 최대주주 금지조항을 둠.
 - 배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50%이하로 제한하였고, 최대주주는 내국민이어야 함.
 - 배전 및 판매부문을 포함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

3. 해외 주요 전력시장 지배구조 현황

가. 미국

- 주식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가 미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전력회사 소유구조 유형(Forms of Ownership)임. 회사 소유주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명보험증권, 퇴직펀드, 뮤추얼펀드와 같은 투자를 통한 수백만의 소규모 주식투자자들임.
- 주식회사 형태의 전력회사(Shareholder-owned electric companies)는 여러 다양한 계층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며, 주정부 혹은 지역 정부소유의 전력회사, 공영전력회사, 벽지지역의 전력회사 등에게 도매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함.
- 시영 전력회사(Municipally-owned electric utilities)들은 지자체시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전력회사로서, 뮤추얼펀드에 의해 재무가 조달되는 회사를 지칭함. 자가 규제 형식이며, 전체 전력수요의 11%가 약 2천개의 지자체 소유의 시스템에 의해 충족됨.
- 연방정부 소유 전력회사(federally-owned systems)들은 발전과 송전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조합소유 전력회사와 민간주주 소유의 전력회사들에게 도매시장가격으로 전력을 판매

함. 이런 정부기관은 연방소유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Army Corps of Engineers 와 Bureau of Reclamation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전력을 지방 주정부 및 조합형태의 전력회사에 우대 판매하는 5개 전력마케팅대행사가 있음. 더욱이, 테네시 밸리 (Tennessee Valley)정부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송전하는 식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함.

- 약 1000개의 지방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배전업체로 연방소유 그리고/또는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함. 그러나 약 60여개업체는 그들의 배전업체에게 도매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및 송전기업임.

〈표 3〉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2000)

Item	전력회사유형				
	투자자	공공	조합	연방	총계*
Number of Electric Utilities	240	2,009	894	9	3,152
Electric Utilities (percent)	7.6	63.7	28.4	.3	100.0
Revenues from Sales to Ultimate Consumers (thousand dollars)	169,444,470	33,054,956	20,506,101	1,242,031	224,247,558
Revenues from Sales to Ultimate Consumers (percent)	75.6	14.7	9.1	.6	100.0
Sales of Electricity to Ultimate Consumers (thousand megawatthours)	2,437,982	516,681	305,856	49,094	3,309,613
Sales of Electricity to Ultimate Consumers (percent)	73.7	15.6	9.2	1.5	100.0
Average Revenue per kWh for Ultimate Consumers (cents)	6.9	6.4	6.7	2.5	6.8
Revenues from Sales for Resale (thousand dollars)	35,359,346	13,430,253	12,027,771	8,900,091	69,717,461
Revenues from Sales for Resale (percent)	50.7	19.3	17.3	12.8	100.0
Sales of Electricity Available for Resale (thousand megawatthours)	854,228	301,412	311,935	248,664	1,716,239
Sales of Electricity Available for Resale (percent)	49.8	17.6	18.2	14.5	100.0
Average Revenue per kWh for Sales for Resale (cents)	4.1	4.5	3.9	3.6	4.1

* includes only those electric utilities in the U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Note: Totals may not equal sum of components because of independent rounding.

자료: EIA, Form EIA-861, "Annual Electric Utility Report," Data are based on calendar year submissions.

나. 영국

- 영국 전력시장의 규제기관으로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이 있음.
 - Ofgem은 가스, 전력산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전력사업자 및 관련기관 규제를 담당
 - 전력회사들이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어 기업의 소유구조가 복잡한 것이 특징
 - 전력산업 자유화 추진이후 위험관리와 시장점유 확대 등을 위하여 M&A 등의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를 추진
- 발전 및 공급을 담당하는 British Energy는 영국정부가 운영(64%소유지분중 2007년 28% 매각결정)하며, 6개 기업이 시장참여자임(Centrica, NPower(RWE), Powergen(Eon), EDF Energy, Scottish Power, Scottish and Southern Electricity).
 - 이들 기업 중 어떤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않음. 몇몇 기업은 발전시장에만 참여하나, 소수의 대규모 소비자에게 공급함.
- 발전회사 중 가장 큰 기업은 British Energy로 전력발전용량(원자력)의 약 20%를 생산함. 다른 순수 발전업자는 Independent Energy 와 Drax plc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음.
- 현재 6대 기업 외에 다른 공급업자들이 진출해 있음. 그러나 주요 공급업자들이 제공하는 계약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상담을 해주는 브로커 형태의 서비스들이 주를 이룸.
- 송전사업자로는 NGC가 있으며, 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13개의 대형사업자가 존재함.

〈표 4〉 영국의 전력부문별 구조개편 전후 비교

기능/국가	영국		
	구조개편이전	구조개편이후	현재
발전	CEGB(국영)	NP/PG(민영)	RWE/EON SSE, EdF, Centrica, Scottish Power, Drax, 기타
		BE(국영)	BE(국영)
		National Grid(민영)	National Grid(민영)
송전			
배전	12REC (지역배전회사)	민영(일부 공영)	7개의 대형 사업자 (CE, EdF, SSE, Western Power, CN, United Energy)
판매		민영(일부 공영)	6개의 대형 사업자 (PowerGen, EdF, SSE, Innology, Scot Power, BG)

- British Energy

- 가장 큰 영국 발전업체로, 주로 기존에 국영이었던 8개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며 Eggborough 석탄발전소를 가동함. 1996년 민영화하였으나, 2002년부터 금융여건 나빠짐. 2004년 9월 22일, 영국정부는 EC의 승인을 얻어 British Energy의 구조조정에 £3 billion 이상을 투자함. 9월 24일에 British Energy는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것을 반영하는 “a public body”로 분류됨. 2007년 5월 30일 정부가 소유한 British Energy 지분의 최고 28%에 해당하는 약 450백만 주식 매도의사를 발표함. 매도 후의 British Energy에 대한 정부 소유 지분은 약 36% 수준임.

- Powergen

- 두번째로 큰 영국전력기업으로, 2002년부터 독일 기업인 E.ON 소유임.

-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plc (SSE)

- Scottish Hydro-Electric plc 과 Southern Electric plc이 1998년 합병하여 탄생된 기업임.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로, SWALEC, Southern Electric, Scottish Hydro Electric, Atlantic Electric and Gas 등의 기업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임. 또한 Southern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cottish Hydro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cottish Hydro Electric Transmission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5년 Scotia Gas Networks 의 50%지분 획득함.

- National Power

- 영국과 웨일즈에서 가장 큰 발전업자로 2000년 Innogy와 International Power로 분리됨. Innogy는 영국에서 발전 및 소매전력과 가스사업을 하는 주요 기업임. 2002년 RWE가 Innogy를 인수함.

- 송전을 담당하는 NGC(National Grid Company)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독립 송전망 사업자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사업중인 100대 기업 중의 하나임. 2005년 7월 National Grid Transco로 회사이름을 바꿈. 그 역할과 기능은 잉글랜드/웨일즈 지방의 송전망을 소유·운영하며, 하루 24번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책임짐. NGC 또는 NGT는 1990년 잉글랜드/웨일즈의 전력 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12개 지역배전회사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5년 런던 증시에 상장됨.¹⁾

1) 영국전력 판매·배전·송전망 시장, 배전회사 소유구조 및 주택용 전력시장의 소유구조는 부록 참조.

다.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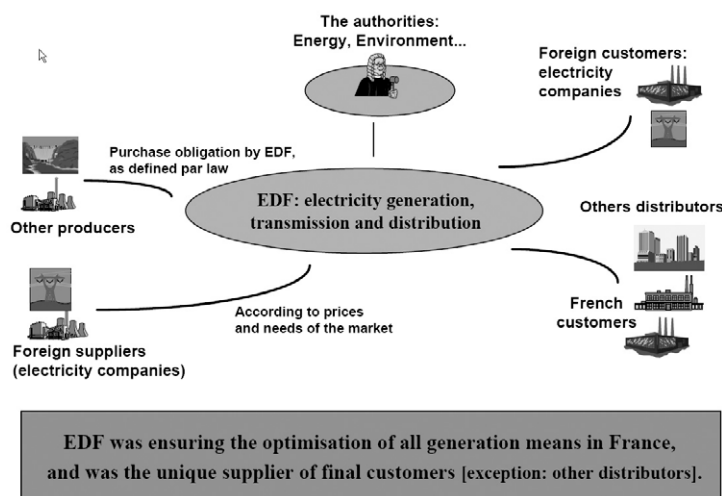
- 발전, 공급, 그리고 에너지 거래는 규제를 제거하였으나, 송배전은 여전히 규제대상임.
 - 발전, 공급, 그리고 에너지 거래에서 2004년 7월 1일 가계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 시장을 개방함.
 - 2007년 7월 1일 가계부분 또한 개방함.
 - 현재 발전부문에는 EDF, CNR, SNET 등이 있으며, 송전부문은 국영인 RTE가 담당하고 있음.

〈표 5〉 프랑스의 전력부문별 전력시장자유화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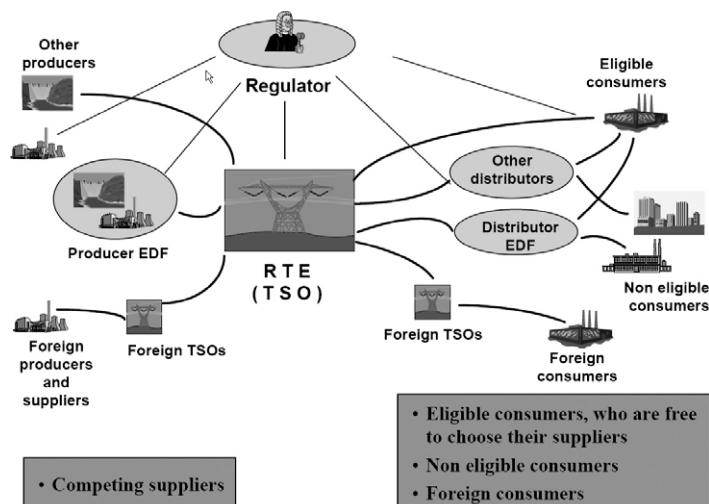
기능/국가	프랑스		
	구조개편이전	구조개편이후	현재
발전	EDF(국영), CNR, SNET, Harpen AG	EDF-생산부문 CNR, SNET, SDEM (railways) 외국 전력회사 (Electrabel, Endesa, RWE, E.ON, HEW, Verbund, Edison, etc.)	EDF(국영), CNR(Electrabel), SNET(Endesa)
송전	EDF(국영) 95% 공급	Réseau de Transport d'Electricité (RTE/EDF)	RTE(국영)
배전	EDF(국영) 95% 공급	배전 운영자 (EDF units, 170 시영회사*)	배전 운영자 (EDF units, 160 시영회사*)
판매		EDF-판매부문, 170 시영회사 Independent suppliers: foreign traders and producers	

- EDF(Electric de France)
 - 2004년 11월 19까지는 국영이었으나, 2005년 11월 21일 Euroext Paris 주식시장에서 15%의 주식을 처분하고, 현재 사법(private law)하의 유한책임회사임.
 - 2007년 1월 3일 현재 프랑스정부는 EDF의 8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EDF 고용자들이 1.9%, 일반인이 10.8%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유럽에서 최대 전력생산업자로서 128GW 이상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
 - 발전, 송전, 배전, 거래 및 에너지판매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사업 중임. 발전은 원자력 및 수력 발전에 집중함. 19곳에서 58개의 원자력발전시설 가동중임. 송전은 EDF의 자사인 RTE EDF Transport가 전담하고 있으며, 배전은 EDF Réseau de distribution 및 EDF Gaz de France Distribution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 1] 구조개편 이전 프랑스 전력시장



[그림 2] 전력시장자유화 이후 프랑스 전력시장



라.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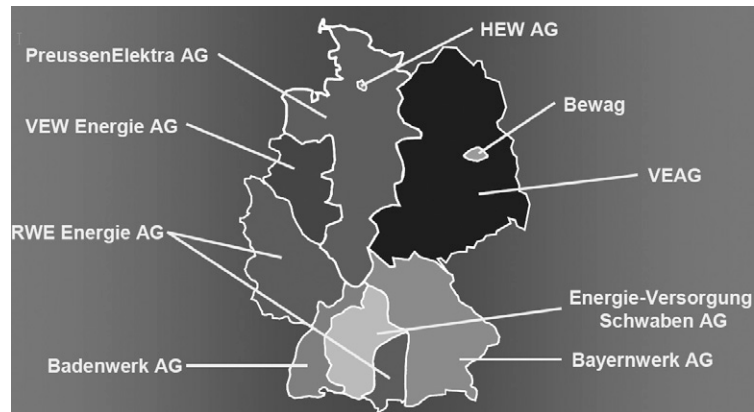
- 소수의 대규모기업들이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전력시장을 지배함.
 - RWE, E.ON, Vattenfall, 그리고 EnBW 등 4개의 대기업은 총 전력발전의 90% 시장을 점유함.
 - 4개 대기업들이 100% 송전을 담당하고, 판매부분에서도 72.8%의 시장을 점유함. 나머지 소비전력은 민간발전(풍력) 및 지방자치 전력회사가 공급함.
- RWE
 - 독일에서 가장 큰 전력 발전회사이며 공급업자

-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으로 발전, 송전 및 공급, 거래, 전력망운영 등에 참여
- 2002년 영국 Innogy 인수, 또한 Entire Czech Gas Industry, American Water and Innogy 인수
- E.ON
 - 독일기업으로 전력 및 천연가스, 통신, 부동산, 화학 등에 걸쳐 사업
 - RWE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가장 큰 전력회사로, 전력발전으로 하면 약 25%의 시장점유
 - 독일 및 영국의 전력 및 가스 공급에서 1위 기업
 - 스웨덴 기업인 Sydkraft(현재 E.ON Sverige)와 영국 기업 Powergen(현재 E.ON UK) 인수
- EnBW
 - 독일기업으로 독일에서 3번째로 큰 전력기업
 -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력회사(주로 남서지역에 전력을 공급운반)이며, 지역 열 및 폐기물운영시장에 참여
 - 소유구조 : EDF(34.5%), OEW(34.5%), Deutsche Bank(5.86%), HSBC(5.86%) Bädisher Electrifikationsverband(3.44%)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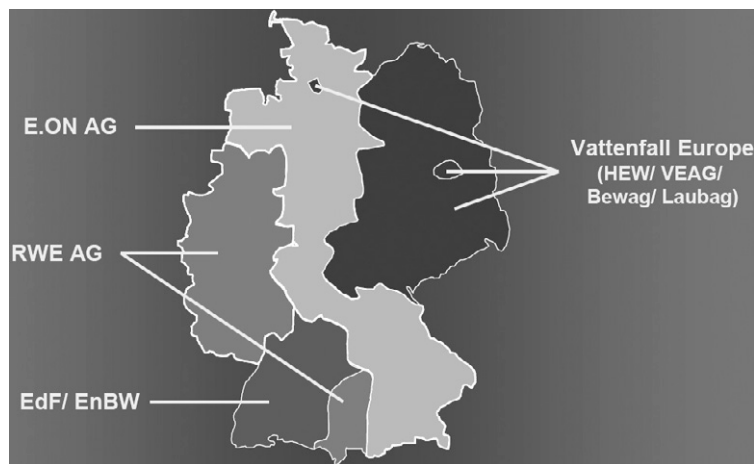
〈표 6〉 독일의 전력부문별 전력시장자유화 전후 비교

국가 기능	독일		
	구조개편이전 (1997)	구조개편이후 (1999)	현재 (2004)
발전 (전력량)	- 8 망소유 전력회사(79%): RWE, VEW, EnBW, BEWAG, HEW, PreussenElektra AG, BayerwerkAG, VEAG - 기타(21%): 지역전력공급회사(10%), 시영전력회사(11%)	- 6 망소유 전력회사(73.8%): RWE(28.4%), E.ON(24.7%), EnBW(7.2%), VEAG(8.9%), HEW(2.6%), Bewag(2.1%) - 기타(26.2%): 시영전력회사, 지역발전사업자, 신규지역발전사업자	- 4 망소유 전력회사(95.6%): RWE(38.7%), E.ON(26.5%), EnBW(13.8%), Vattenfall Europe(16.2%) - 기타(4.4%): 시영전력회사, 지역발전사업자, 신규지역발 전사업자
송전	8개 망소유 전력회사(100%)	6개 망소유 전력회사(100%)	4개 망소유 전력회사(100%)
배전	- 80 지역전력공급회사 - 900 시영전력회사	- 지역전력공급회사 - 시영전력회사	- 50 지역전력공급회사 - 700 시영전력회사
판매	- 5개 망소유 전력회사(RWE, VEW, EnBW, BEWAG, HEW) 가 판매사업 활동 (51%-59%, 1995) 지역전력회사에 대한 자본지분 참여 포함 - 80 지역전력공급회사 - 900 시영전력회사	- 6 개 망소유 전력회사 (61.6%): RWE: (29.1%), E.ON(18.5%), EnBW(6.1%), VEAG(no data), HEW(4.8%), Bewag(3.1%) - 기타(38.4%): 시영전력회사, 지역발전사업자	- 4개 전력회사(72.8%): RWE: (16.8%), E.ON(22.1%), EnBW(19.5%), Vattenfall Europe(14.4%) - 기타(27.2%): 700 시영전력회사, 지역발전사업자

[그림 3] 구조개편전 독일 전력시장 판매부문 변화



[그림 4] 구조개편후 독일 전력시장 판매부문 변화



마. 스페인

- 발전 및 공급시장은 4개 발전기업 및 배전업체가 90%정도의 시장을 점유
 - Endesa, Iberdrola, Hidrocantabrico, 그리고 Union Fenosa 등이 4대 발전기업
 - Endesa와 Iberdrola가 전력 공급의 70%를 담당
 - 이 밖에 스페인 가스시장에 참여하는 Gas Natural이 2002년부터 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7%를 공급
 - 현존하는 기업을 합병하지 않는 이상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함. 포르투갈 기업인 EDP는 Hidrocantabrico(공급의 5.5%)를 합병하고,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ENEL은 소규모 배전업체인 Viesgo(공급의 1.5%)를 합병하여 시장에 진입함. 다른 시장참가자들은 1%의 시장점유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Gas Natural을 제외하고는 새로이 진입한 기업들의 총 시장점유가 3% 미만임.

- 송전시스템운영자(TSO)인 Red Electrica는 2002년 이후 점차적으로 송전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현재 송전시장 전체를 소유하게 됨. Red Electrica의 소유권에 있어 독립성은 법적으로 보증됨. 325개의 배전업체들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발전에도 참여하고 있는 Endesa, Iberdrola, Hidrocanabrico, 그리고 Union Fenosa 등 4개 기업이 주요 배전업체이기도 함.
- 스페인 전력거래소(Pool)는 OMEL에 의해 운영됨.
- Iberian Electricity Market, MIBEL,은 2006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함. 설립목적은 도매 Iberian pool시장에서 단독시장운영자를 만들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에 통합된 전력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함임.
- Endesa는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이며, 두번째로 큰 가스기업임. 가스 배송, 물처리, 통신 및 신기술 등에도 참여하는 기업으로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유럽 일부에서 발전, 송전 및 배전사업에 참여함. 2006년 Gas Natural(스페인), E.ON(독일), ENEL(이탈리아) 등의 기업들은 Endesa에 대하여 인수합병을 시도하였으나, 스페인 정부는 Gas Natural(스페인)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고, 2007월 4월 E.ON은 입찰을 포기하게 됨.

바. 스웨덴

- 스웨덴 전력은 소수 기업들에 의해 생산 됨. 2005년 Vattenfall, Fortum, 그리고 E.ON Swenden 이 스웨덴 전력의 88%를 생산함.
- 그러나 전력도매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함. 3대 Nordic 전력생산자들의 시장점유율은 41% 정도임. 공급업체와 대규모 최종소비자는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할 수 있음.
 - Nord Pool에서의 전력구입은 구역 간 가격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 소비자가 공급업자를 바꾸는 것은 스웨덴 소매전력시장에서 매우 흔한 일로, 1996년 시장개혁이 후, 전력소비자의 총 54%가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공급업자를 바꿈.
- Vattenfall
 - 스웨덴 국영기업으로 전력, 열, 천연가스 등의 사업에 참여
 - 전력부문에서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발전, 송전, 배전, 거래, 공급 및 서비스 등에 참여
 - 노르딕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전력 발전업자로 20%의 시장점유

- 배전은 약 17%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주요 시장
- 독일에서 사업 중인 기업 중 3번째로 큰 전력발전업자로 17% 시장점유, 배전부분에서는 4번째로 8% 시장점유
- 유럽전체로 보면, Vattenfall은 5번째로 큰 발전업자이며 가장 큰 구역열공급업자임. 폴란드에서 Vattenfall은 Warsaw에 있는 Elektrociepłownie Warszawskie 지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함(69% 지분 소유). 전력 배전 및 판매기업인 Gornoslaski zaklad Elektroenergetyczny의 32% 지분을 소유함.

● Fortum

- 핀란드 에너지 기업으로 노르딕과 발틱 국가, 폴란드와 러시아 북서 지역에서 사업
- Fortum은 발전, 배전, 전력 및 열 판매 사업을 함. 또한 다른 에너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도 참가함.

사. 이탈리아

- 전력발전에 있어서, 5대 발전회사가 70%이상을 생산함. Enel Produzione(39%), Edison Group(11.7%), Eni Group(9%), Endesa Italia(8.2%), 그리고 Edipower(8%) 등이 포함됨.
- TERNA는 송전시스템운영자(TSO)로 2007년 7월 1일부로 어떤 전력시장참여자도 관련주식자본의 5%이상을 초과해서 Terna의 주식을 가질 수 없음. 현재 Enel이 5.12% 소유함.
- Acquirente Unico SpA는 자가발전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하는 유일한 도매시장구매자임.
- 2006년 6월 30일자로 이탈리아에는 168개의 배전업자가 존재함. 가장 큰 기업이 Enel Distribuzione이며, 1999년부터 법적으로 분리됨. 그러나 의사결정 및 운영과 같은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님.
- ENEL
 -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로, 유럽에서는 시장자본으로 3번째로 큰 기업으로 등록됨.
 - 기존에는 국영의 독점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이탈리아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부분적으로 민영화됨.
 - 최근 Endesa에 대하여 스페인 기업 Acciona와 함께 합작인수 시도함.

아. 일본

- 일본의 전력은 일반전기사업자, 도매전기사업자, 도매공급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 특정규모전기사업자 등의 전기사업자들에 의해 공급됨.
 -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사업자인 일반전기사업자로는 총 10개의 발전회사가 있으며, 자사 공급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를 갖고 있어 발전, 송배전 및 소매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이나 과다한 여름철 피크부하 발생 시 타사로부터 전력지원이 가능(오키나와전력은 단독계통으로 예외)함. 원활한 전력유통을 위해 전력 9사 및 이들 전력회사에 도매로 공급하는 전원개발(株)을 회원사로 하는 중앙전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도매전기사업자는 20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통해 일반전기사업자에게 도매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전원개발(株) 및 일본원자력발전(株) 등 2사가 있음. 도매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은 일본 전체 용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원개발주식회사는 1952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음. 자본금수준은 706억엔으로서 정부출자 471억엔과 9개전력회사출자 235억엔으로 이루어져 있음.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는 1957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200억엔으로서 발전설비용량은 2,617MW(원자력 3基)임.
 - 도매공급사업자는 200만kW 이하 발전설비를 통해 일반전기사업자에게 도매로 공급하는 전기사업자로서 2004년 현재 공영 33사, 사영 19사가 활동하고 있음.
 - 특정전기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발전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일반전기사업자의 송전 네트워크를 이용해 건물을 단위로 한 특정한 공급지점 등에 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칭함. 2006년 현재 동일본여객철도(주) 등 6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총 268,853kW로서 화력 267,782kW와 수력 1,071kW로 구성되어 있음.
 -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송전선을 이용해 일반전기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자유화 대상 고객에게 소매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2006년 현재 다이아몬드파워(주) 등 23사가 활동하고 있음.
- 10개의 일반전기사업자는 모두 민영화되어 있음. <표 7>은 일반 전기사업자의 주식보유 현황을 보임. 금융기관이 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타 등이 금융기관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외국법인에 의한 소유 지분은 회사별로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적게는 2% 많게는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7〉 일반 전기사업자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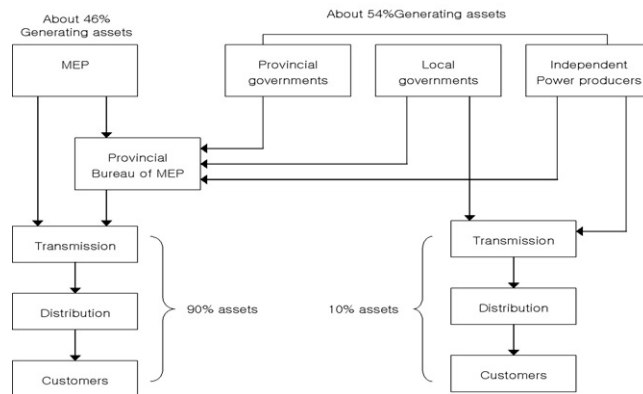
구 분	정부·공공단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타법인	외국법인등	개인 기타
북해도	0.12	43.93	0.51	6.82	10.40	38.21
동 북	4.13	37.06	0.83	6.12	9.80	42.07
동 경	3.25	37.04	1.26	5.94	15.97	36.54
중 부	0.61	41.49	1.00	5.81	13.34	37.73
북 룽	6.18	31.91	0.24	6.45	1.99	53.23
관 서	12.72	28.62	1.08	5.69	13.98	37.91
중 국	0.02	35.10	0.35	19.15	2.56	42.81
사 국	2.51	33.43	0.25	8.23	2.01	53.55
구 주	0.88	47.20	0.92	6.43	10.23	34.33
9개사	4.22	36.83	0.93	7.06	11.58	39.39
오키나와	6.97	45.36	0.67	11.99	15.55	19.46
10개사	4.22	36.86	0.92	7.08	11.59	39.33

자료 : 전기사업편람(2006), 일본전기사업연합회 통계위원회편

차. 중국

- 2002년 SPC(State Power Commission)하에 전력부문을 2개 송배전업자, 5개 발전업체, 4개 지원업체로 수직적 분리시킴.
 - 송배전업자(국영) : State Grid Corporatio of China(SG), China Southern Power Grid Co Ltd
 - 발전기업(민영) : Huaneng Group, Datang Group, Huadian Group, Guodian Group, 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CPI)
 - 보조업체 : China Power Engineering Consultation Gp, China Hydropower Engineering Consultation Group, China Hydropower Construction Group, China Gezhouba Group
 - 2006년 4월 현재 2개의 송배전업체는 자연독점으로, SGCC(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80%, CSGC(China Southern Grid Corporation)가 20%를 차지하고 있음.
 - 31개사가 지역내 송배전사업에 6개사가 지역간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3,211개의 전력공급회사 가운데 1,196개사가 SGCC와 CSGC의 산하에 존재하거나 직공급을 받고 있음. SGCC와 CSGC는 또한 총 3,211개사 중 또 다른 1,353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음. 따라서 나머지 662개사가 독립적인 개별기업임.
 - 복점인 송배전회사(SGCC와 CSGC)의 시장점유율이 중국전체 판매 전력의 약 89%를 차지함.

[그림 5] 초기개혁후의 중국 전력 시스템



자료 : Honglian Yang(2006), "Overview of the Chinese Electricity Industry and its Current Uses", Working paper, CWPE 0617 and EPRG 0517

카. 인도

- 발전부문은 대부분 주정부 소유의 발전시설들로 구성
 - 에너지믹스 : 석탄 61%, 수력 24%, 가스 10%, 원자력 3%, 석유 2%
 - 석탄과 수력 발전이 향후 주요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
 - 상업 및 산업부문의 높은 요금, 전력 부족, 질적인 문제 및 불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많은 인도 기업들은 자가발전시설을 보유(76%정도의 사업체)
- 송전 네트워크는 현재 인구의 80% 수준
 - 송전 인프라는 5개 지역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국가망으로 상호연결 되어 있지 않음.
 - 주정부 소유의 Powergrid corporation은 인도에서 발전되는 전력의 약 40% 송배전을 담당함.
- 전력부문의 지배적인 기업
 -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mpany)은 주요 시장참여자로서 인도 주정부 소유 발전회사
 - Reliance/BSES는 가스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며, Mumbai에서 가장 큰 전력 배전망기업
 - Tata Power는 발전 라이선스를 가지고 Mumbai에서 20세기 초에 사업을 시작하여 발전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민간 부문 발전업자

4.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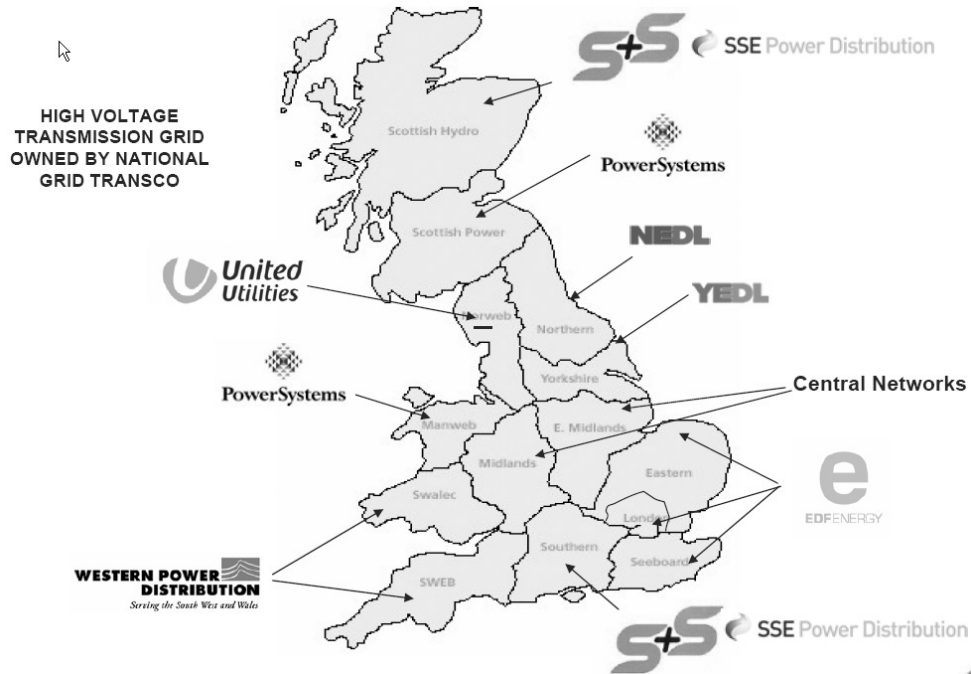
- 미국 및 EU 등의 해외 국가의 전력시장은 이미 시장을 개방하였거나 시장개방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전력시장의 소유구조는 다양함. 반면 중국 및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전력시

장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 소유가 많고 부분적으로 민간 부분의 참여가 존재하는 전력시장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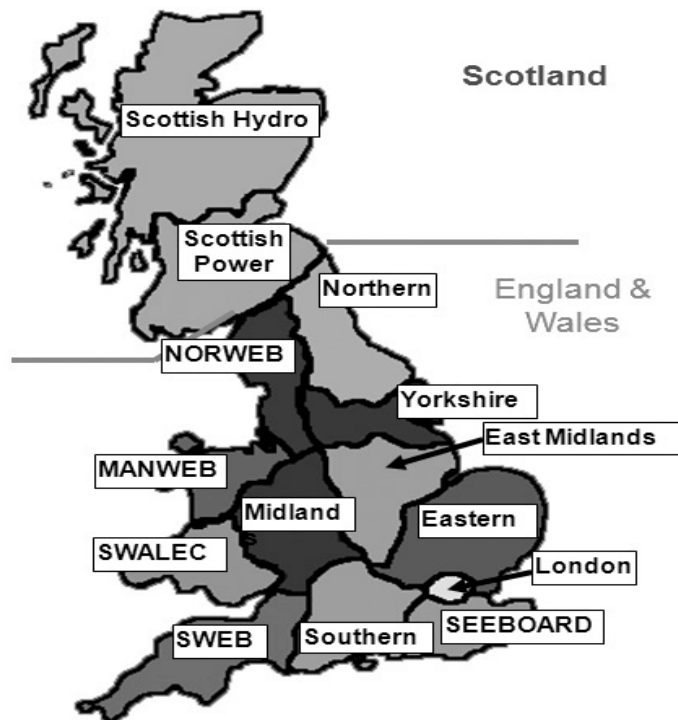
- EU 등의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력사업자의 소유구조는 다양하며 반드시 민영화되는 것을 전제할 필요는 없음. 즉, 기업의 소유구조는 다양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가능 부문(발전, 판매)에 있어 민영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는 없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 혹은 규제완화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전력회사의 민영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임.
- 국내 전력산업의 주요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로서 현재 공적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와 같은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FTA 체결에 따라 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확대(51% 이상)가 요구될 때는 발전부문에 대해 독점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송·배전부문에 있어서는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국인 지분참여의 확대(51% 이상)가 발생할 경우 한전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지위가 변경되고, 이는 결국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네트워크 부문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적정투자보수는 과잉투자 혹은 과소투자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현행 요금제도하에서 판매부문의 개방은 새로운 판매사업자가 원가회수율이 높은 일반용, 주택용 고객만을 대상으로 수익추구행위를 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용, 주택용고객의 급속한 이탈은 산업용, 농사용 고객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공급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FTA 체결에 있어 에너지서비스부문, 투자부문 등에 대하여 전부 양허를 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대응전략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부록》

[그림 6] NGT가 소유한 송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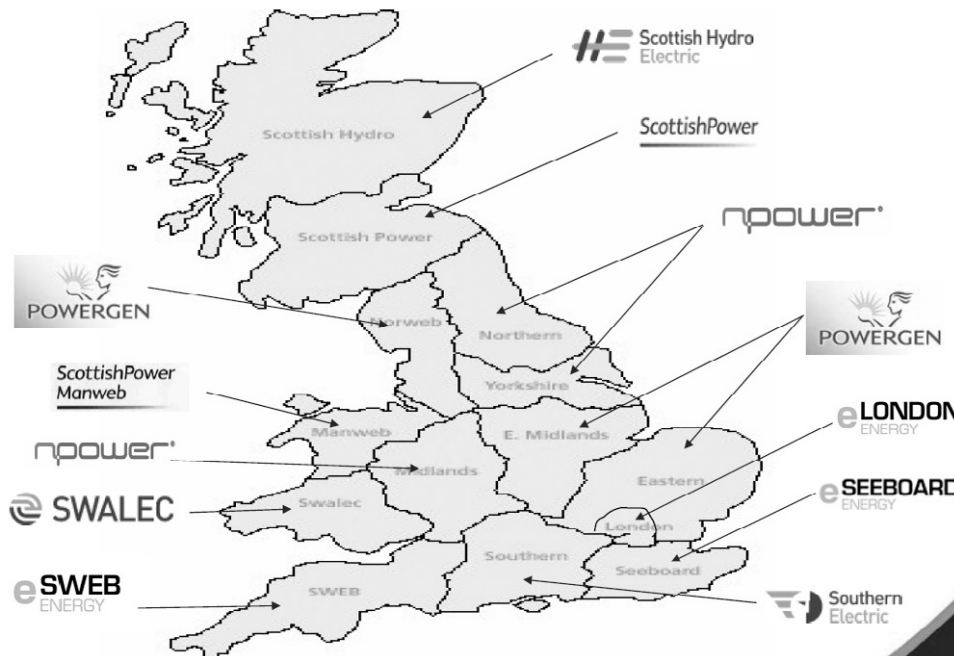
[그림 7] 영국 배전부문 전력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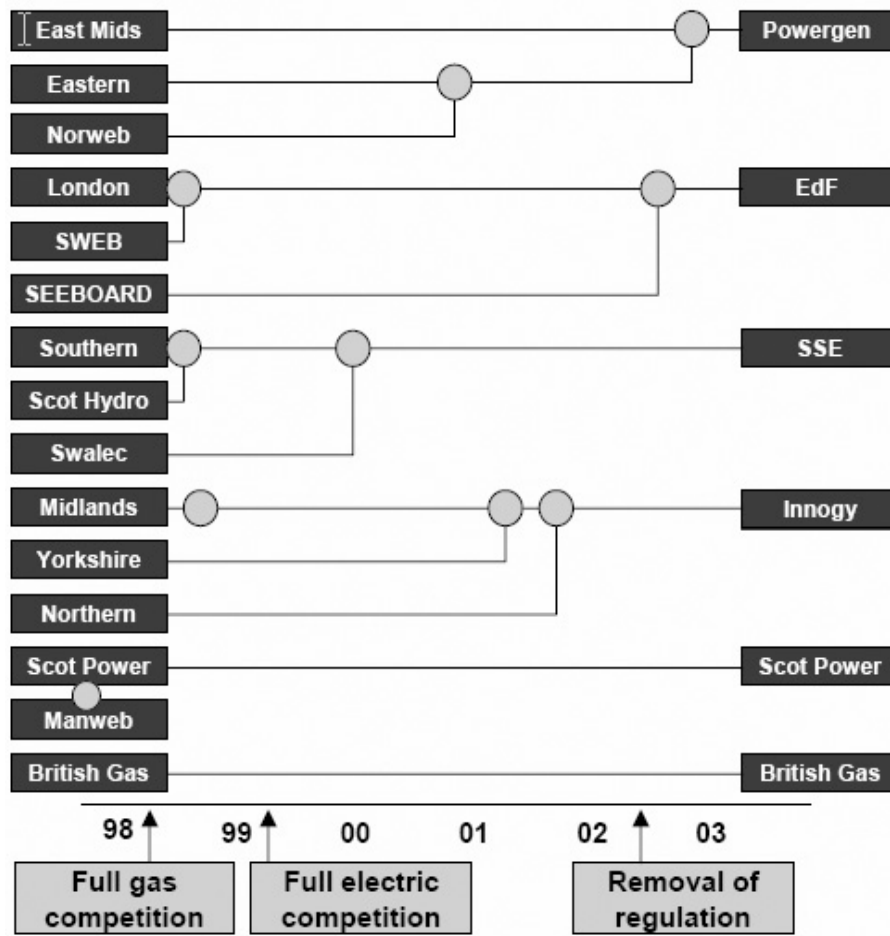
〈표 8〉 영국 배전회사 소유구조

배전회사명	지역	소유주 회사	현재 소유지배구조
East Midlands Electricity	East Midlands	Central Networks	EON(독일)
Eastern Electricity	East England	EDF Energy Networks	EDF(프랑스)
London Electricity	London	EDF Energy Networks	EDF(프랑스)
Manweb		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	Scottish Power(스페인)
Midlands Electricity	West Midlands	Central Networks	EON(독일)
Northern Electric	North East England	CE Electric (NEDL)	Berkshire Hathaway (미국 민간회사)
Norweb	North West	United Utilities	United Utilities(영국 국영)
Scottish Hydro Electric	North Scotland	Scottish Hydro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cottish and Southern Energy(영국)
Scottish Power	South Scotland	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	Scottish Power(스페인)
SEEBBOARD	South East England	EDF Energy Networks	EDF(프랑스)
Southern Electric	Southern England	Southern Electric Power Distribution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영국)
South Wales Electricity	South Wales	Western Power Distribution	PPL - 미국 민영회사
South Western Electricity	South West England	Western Power Distribution	PPL - 미국 민영회사
Yorkshire Electricity	Yorkshire	CE Electric (YEDL)	Berkshire Hathaway (미국 민간회사)

[그림 8] 영국 전력 판매시장 현황



[그림 9] 구조개편 전후 영국 전력판매회사 변화



〈표 9〉 영구 주택요 전량시장의 소유구조 (2003년 12월 기준)

[illegible]

I=Incumbent, E=Entrant, N=Neither. (a)SSE counts for one supplier

자료 : Evens Salies(2006), "Mergers in the GB Electricity Market : effects on Retail Charges", Working Paper, OFCE



전력시장 FTA 대응방안

-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